

# 도시 기혼남녀의 전통적 효 규범의식과 친척유대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The Relationship between Urban Married's Normative Sense of the Traditional Filial Piety and their Affiliation with Relatives\*

상지대학교 생활과학산업학과  
교수 안혜숙

Dept. of Family Science & Industry, Sangji University

Professor : Ahn, Hei Sook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scuss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people's normative sense of the traditional filial piety and their affiliation with relatives.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er reviewed ethics books during the Chosun dynasty such as Naehoon (Women's Ethics), Dongmongsonsop (Children's Cardinal Moral Principles), Kyokmongyokyol (Juvenile's Learning) and Gyuenyoso (Instructions for Daughters of Marriageable Age). Based on this review a questionnaire was designed.

For the survey, 566 returned questionnaires from married people between their 20's and 70's living in Seoul and Wonju Si were sampl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AS program for means and SDs of each area in order to examine the overall tendency, and were subject to one-way ANOVA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normative sense of the traditional filial piety and their affiliations with relatives depending on their demographic variables. In addition to this correlation analysis, the data underwent regression analysis to determine th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the subjects' sense of filial piety and their affiliation with relativ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the subjects were found to have a normal or higher sense of filial piety in overall terms, which

Corresponding Author: Hei Sook Ahn, Department of Family Science and Industry, Sangji University 660 Woosan-dong, Wonju 220-702

Korea Tel: 82-33-730-0491 E-mail: hsahn@sangji.ac.kr

\* 이 논문은 2003년도 상지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suggests that the Korean morality of filial piety may be positive. In particular, the subjects' sense of filial piety was higher for living parents than for dead ones. Namely, they wanted to give more respect, honor and support to their parents than give a cordial funeral or memorial service to deceased parents.

Second, older Koreans were more aware of filial piety, and men were more conscious of filial piety than women. Buddhists or atheists tended to be more faithful to their parents. Generally, those with lower academic background and living with larger families had a higher normative sense of filial piety. On the other hand, those in their 60's and 70's were most affiliated with their relatives, while youth and middle-aged people were less affiliated with their relatives. Men were more affiliated with their relatives than women, and first sons or daughters were more affiliated with their relatives. Besides, those living with larger families were more affiliated with their relatives.

Third, the subjects' normative sense of filial piety, particularly for deceased parents, was highly correlated with their affiliation with relatives, and such a normative sense of filial piety was most conspicuous in their funeral rites.

**주제어(Key Words):** 생사의 효(filial piety for living parents), 사후의 효(filial piety for dead parents), 의례적 유대(ritual affiliation), 사교적 유대(social affiliation)

## I. 서론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孝를 모든 인륜관계의 규범으로 여기며 안으로는 부모자녀간, 형제 친척간의 가족 윤리로서 밖으로는 연장자와 연소자간 예의로 일깨우고 실천해 왔다. 효의 본질은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자식간 父子慈孝의 당위성을 지니고 있으며, 事親으로 시작해 자신과 국가 그리고 모든 인간사회의 기본윤리로 자리잡았다.

한민족 생활사에서 본래 가족윤리의 원천인 웃어른에 대한 孝 또는 조상숭배사상은 선사시대의 지식묘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선사시대때부터 윤리·도덕의 원리와 그 실천 樣式등이 쌓이고 다듬어져서 한민족의 고유 문화로서 틀이 잡혀 있었던 것이다(안혜숙, 1999). 농경사회가 시작되면서 고유한 한민족 문화와 유교적 전통이 가족윤리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효 규범이 가정 및 사회의 근본을 이루는 가치 있는 사상적 지지기반을 이루어 왔다.

한편, 한국인의 효행에 대한 최근 연구(성규탁, 1989)에서 효행자들의 효행동기는 주로 “존경”, “책입”, “가족화합”, “희생”, 그리고 “보은”이었으며, 효행자들은 부모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부모, 다른 가족성원, 친척·이웃 및 지역사회 성원들과 일련의 복잡한 대인관계의 網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효도를 한 후 받을 결과 또는 보상은 모두 긍정적이며 “가족·사

회”의 연속선 위의 효행 결과들이 놓여 있었다. 효행자들이 받은 보상은 대개 물질적이 아닌 심리적인 성질의 것이었는데, 무엇보다도 효행이 가족단위의 화합을 이룩하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의 발전은 인간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준 반면 전통적 가족구조 및 기능의 약화를 조장하고,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은 상대적으로 가족 내 인간관계를 멀어지게끔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오늘날 사회조직이 다원화되고 친족제도의 규제력은 약화되고 있으며(이효재, 1990), 권위적이고 의무적인 친족관계는 선택적이고 상호교환적 관계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이광자, 1988).

이와같이 가족 및 친족관계의 변화는 물질문명이 정신문명의 우위에 존재하게 되면서 인간 본질에 바탕을 이루어 온 전통적 효 의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가정의 윤리 규범을 벗어난 청소년·노인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더불어 사이버 시대에 가족간 독립된 인간관계는 효의 실천적 장으로서 경험의 기회를 박탈하고 인간을 고립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사회가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인간성 상실을 자각케 하고 인간성 회복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을 일깨워준다. 따라서 모든 인간 생활에 근본을 이루어 온 전통적 효의 가치규범을 현대인의 친척 유대와 관련시켜 조명하는 작업은

매우 의미 있다고 본다. 현대사회 및 가정이 직면하고 있는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전통적인 효에 대한 가치규범과 친척유대 관계와의 관련성 논의는 현대인들이 지향하는 효 의식과 인간관계의 본질을 밝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전통사회 규범서에 제시된 효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인의 효규범 의식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친척간 유대와의 관련성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예기』에서는 효의 내용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大孝는 부모를 존경하는 것(尊親)이고 그 다음은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고(弗辱), 그 아래는 능히 봉양하는 것(能養)이다.'라고 하며 부모께 단지 물질적 봉양을 하는 능양의 효를 가장 낮은 小孝라고 보았다. 존친(尊親)의 효란 부모를 존경하고 받들어 모심에 부모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공경의 효, 순종의 효가 그에 해당된다. 불욕(弗辱)의 효는 부모를 욕되지 않도록 형제와 친척간 화목하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체를 잘 보전하고 언행을 반듯하게 하여 입신 행도 하는 효를 말한다. 능양(能養)의 효란 부모를 신체적 물리적으로 보살펴드리는 봉양과 시중의 효를 포함하고 있다.

효란 부모가 생존해 계실 때 뿐 아니라 돌아가신 후에도 부모의 유지(遺志)를 잊지 않고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사(喪事)의 효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이를 슬퍼하여 애도의 뜻을 가지며 정성과 예를 다해 거상을 하는 것이다. 제사(祭祀)는 돌아가신 부모의 기일을 잊지 않고 공경의 예를 행하는 것이다. 부모의 은혜에 대해 돌아가신 후에도 항상 잊지 않고 상·제례를 통해 보은의 마음을 이어가는 것 또한 효라 할 수 있다.

### 1. 규범서에 나타난 효의 내용

본 연구에서는 15C-17C까지 여성들을 위한 교훈

서인 내훈(內訓), 동몽선습(童蒙先習), 격몽요결(擊蒙要訣), 계녀서(戒女書)에서 효의 내용을 발췌하였다. 효는 크게 생시의 효와 사후의 효로 구분되며, 규범서의 내용 중 생시(生時)의 효는 예기(禮記)에서 분류한 존친(尊親), 불욕(弗辱), 능양(能養)으로 보고 있으며, 부모 사후의 효는 상·제례시의 효로 정의할 수 있다.

#### 1) 생시의 효

##### (1) 존친의 효

『내훈』에 '부모가 나를 낳으시니 혈통을 이음이 이만큼 큰 것이 없으며, 임금과 아버지 이에 임하시니 그 은혜 두렵기 이보다 귀함이 없도다. 이런 까닭으로 그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를 일러 패덕(悖德)이라 하고, 그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이를 일러 패례(悖禮)라 한다'(孝親章) 하였다. 존친의 내용으로 『격몽요결』에서는 '아버지와 자식사이는 흔히 사랑하는 마음이 공경하는 마음보다 지나치기 쉽다. 그런즉 ... 지극히 존경하여야 한다. 부모가 앉아 계시고 누워 계시는 곳에는 자식이 감히 눕지 못하며, 부모가 손님을 접대하는 곳에서는 자식이 감히 사사로운 손님을 접대하지 못한다'(事親章)하여 부모 자식간의 사랑보다는 공경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송우암의 『계녀서』에서는 '아비 나하시고 어미 기르시니 부모 안되면 이 몸이 어대로 조차나며 강보의 이실대로부터 성장하도록 근로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하늘이 가히 업거던 엇지 이질 슈 잇시리요. 은덕을 이짐도 불효요.'(부모섬기난 도리라 편)하였다.

존친의 효에는 부모를 섬기고 존경하는 내면화된 효의 실천적 태도로 부모의 뜻을 어기지 않고 언행을 바르게 가지고 부모께 순종하는 것도 포함된다.

『내훈』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이란 부모나 시부모의 명령을 거스르거나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만약에 음식을 먹으라 하시거든 비록 즐겨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맛보아 대령하며, 옷을 주시거든 비록 입고 싶지 않더라도 받

드시 입고 대령하며, 일을 시키고 다른 이로 나를 대신 시키시거든 비록 원치 않더라도 우선 그가 하게 하고, 또 시키신 뒤에야 다시 해야 한다.’(孝親章)고 하였다. 『동몽선습』에서는 ‘부모가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간하되 거슬리지 말며, 세 번 간해도 듣지 않으시거든 울면서 따른다.’고 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부모의 뜻을 어길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으나, 『격몽요결』에서는 ‘부모의 뜻이 만일 의리에 해로운 것이 아니면 마땅히 먼저 그 뜻을 이어 받아서 순순히 행하고 조금이라도 어기지 말아야 한다. 만일 부모의 뜻이 의리에 해로우면 화평한 기운과 즐거운 안색,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모에게 간해서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드려 기어이 부모가 이를 듣도록 한다.’(事親章)고 하여 때에 따른 효도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계녀서』에는 ‘... 부모가 남을 주시고져 하시거든 주고 받고져 하시거던 스그리지 말고...’(부모 섬기난 도리라 편)의 내용에서 부모의 뜻을 받들고 따르는 것이 올바른 순종의 효임을 지적하고 있다.

## (2) 불목의 효

『격몽요결』에서 ‘형제는 같은 부모에게서 몸뚱이를 물려받은 터이니 둘은 모두 한 몸뚱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 마땅히 저와 나라는 간격이 있어 보아서는 안된다. 음식이나 의복의 있고 없는 것을 마땅히 모두 함께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가령 형은 주리고 아우만 배가 부르거나, 아우는 춥고 형만이 따뜻하게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마치 한 몸뚱이 안에 있는 사지 중에서 어느 한편은 병들고 다른 한 쪽은 튼튼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모두 자기들의 부모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居家章)라고 하여 형제간 우애하는 것 또한 효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형제의 자식은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그를 사랑하는 것이나 그를 가르치는 것을 마땅히 자기 자식과 똑같이 할 것이고, 조금도 경중과 후박이 있어서는 안된다.’(居家章)고 하며 친족간 확대된 효의 개념을 교시(敎示)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동몽선습』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어른과

어린이는 天倫의 차례다. ... 어른은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가 어른을 공경한 연후에야 젊은이를 업신여기고 어른을 능멸하는 폐단이 없어 사람의 도리가 바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물며 형제는 동기의 사람이라 골육(骨肉)의 지친이니, 더욱 마땅히 우애하고 가히 노여움을 감추며 원망을 품거나 해서 천륜의 떳떳함을 잘못되게 해서는 안 된다.’(長幼有序)라 하고 있다.

『내훈』에서는 ‘말며느리와 작은며느리는 형제와 같으니 정이 도탑기 남 같을 수 없다. ... 두 여썬이 함께 싸우면 반드시 하나가 꺾이느니, 대응하기를 부드러움으로써 하여야 거의 자기의 어질어짐을 완전히 할 것이니, 내 오직 온순 공손하게 행동하고 성내어 업수이 여김을 그릴 만하게 여기며, 내가 오직 먼저 베풀고 그 값을 구하지 말아야 하니...’(敦睦章)라고 하여 동서지간 화목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계녀서』의 형제 화목하난 도리라 편과 친척 화목하난 도리라 편에서 형제와 친척간에 우애와 돈목해야 함을 중요시하고 있다. ‘형제 난 한 부모에게서 혈기를 난화서 한가지 것먹고 한집에 즈라나 ... 각각 부부를 차려 세간난 후 난 즈식의 말도 듯고 노비의 말도 듯고 조연 불공지설이 잇서 체음의 그 사랑헌던 마암 덤덤 감 호여 심흔 니는 미워호고 샷고져 호난니 이슌니 었지 참혹지 안니호리오’라 하였다. 한 부모에게서 태어나 성장하여 출가한 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미워한다면 이 또한 불효이다.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혈연지간 우애와 돈목으로서 부모를 욕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진정한 효임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규범서에 의하면 자신의 신체를 잘 보전하고 언행을 반듯하게 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얻는 것도 효라 하였다. 『격몽요결』에서는 ‘천하의 모든 물건은 내 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 ... 부모는 나에게 이 몸을 주셨으니 천하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준다해도 이 몸과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事親章) 하여, 생육(生育)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바로 자신의 신체를 잘 보존하는 것이라 하였다. 『내훈』에는 ‘아버이 섬기는 사람은 높은 벼슬에

있어도 교만치 말며 낮은 자리에 있게 되어도 어지럽게 굴지 말며, 여럿이 있는데서 다투지 말아야 하니... 비록 날마다 소·양·돼지 이 세 가지 고기로 봉양을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불효니라.'(孝親章)하고, 『계녀서』에 '내 몸을 천이 하야 남이 경멸이 너 김도 不孝요'라고 하여, 자신의 위치를 굳건히 하지 못하여 타인으로부터 멸시를 받는다면 이는 불효라 하였다.

한편 나이가 차서 학문에 열중하고, 입신양명하여 관직을 얻어 장차 나라의 일을 맡아, 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도 낳아주신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로서 규범서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동몽선습』에 '효도란 사람에게 중대한 일이지만 또 높고 멀어서 행하기 어려운 일도 아니다. 그러나 나면서부터 아는 자가 아니면 반드시 학문에 의하여 알아야 하나니, 학문의 길은 다름이 아니라 장차 옛날과 오늘의 일에 통하며, 사물의 이치에 통달하여 이를 마음에 간직하고 몸에 본받는 것이니, 가히 그 학문을 기르는데 힘쓰지 않겠는가'(總論)하고 하였다. 『격몽요결』 서문에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학문이 아니면 올바른 사람이 될 수가 없다. ... 학문이란 무엇이나 이것은 다만 남의 아버지가 된 자는 그 아들을 사랑할 것, 자식된 자는 부모에게 효도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가르침은 학문을 통해 인간의 도리를 깨닫고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 학문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맨 먼저 뜻부터 세워야 한다.'고 하였으며 '뜻을 세우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말하는 것은 죽이 뜻을 가지고 부지런히 공부하면서도 오히려 내가 따라가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혹시라도 뜻이 정성스럽고 착실하지 못한 채 그대로 우물쭈물 세월만 보내고 있으면 자기 몸이 죽을 때까지 또는 이 세상이 다 할 때까지 무슨 성취하는 일이 있을까 보나'라고 하여 입지(立志)란 뜻과 함께 도(道)를 향해 정진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규범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효(孝)란 부모에 대한 공경과 존경심에서 발원하여 형제, 친척, 이웃에게로 확대된 모든 인간관계의 조화를 포괄하

는 결정체이며, 이 모든 것은 수신(修身)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 2. 선행연구 고찰

### 1) 효 규범 의식

효의 규범은 학문적 영역을 넘어선 한국인의 윤리규범으로서 다각적 측면에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인의 효 윤리관에 대해 조사한 오선균(1981)의 연구 결과, '현대인도 부모의 은공에 대하여 부정하지 않으며 그 은공에 보답하는 인륜적 인간관계로서의 효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옛것은 낡은 것이라 하여 무조건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현대인들도 효에 대해서만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효의 時空을 초월한 가치관을 증명하는 일이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전통적 효 윤리관을 조사한 바(이승원, 1983)에 따르면, 효 내용 중 侍奉의 효에 대해 학생, 학부모 모두가 같이 살면서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奉養의 효가 가장 지배적인 반응을 보여 효 사상이 아직도 건재 하다고 하였다.

한편 효행 내용을 恭敬의 효, 親愛의 효, 家意識의 효, 侍奉의 효, 保身·立身行道의 효, 그리고 自立의 효로 분류하여 대학생의 효행을 연구(고경미, 1987)한 바에 따르면, 공경의 효 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효행 실천도 조사에서는 대체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신세대 부부와 중년기 부부의 효도관을 비교한 연구(김명자 외, 1996)에서는 노인 부양 측면에서 영역별 효도관을 분석하였는데, 신세대 부부의 경우 형편에 맞는 효 영역이 중년기 부부의 경우에는 입신양명 영역에서 부인이 높은 반면, 순종·서비스부양·사후제례·신체보호 영역에 있어서는 신세대와 중년기 모두 부인보다 남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사회 한국인의 효에 관한 연구(정옥분 외, 1996)에서는 전통 효의 개념을 12덕목으로 재정립하여 현대사회를 조명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세대, 성별, 교육수준, 직업, 출생순위, 가족 구조 등에 상관없이 현

대인들에게 효는 '제대로' 인식되고 있다고 결론 맺었다. 세대 및 성별의 차이를 보인 덕목이 '봉양'과 '추모'로 성인 남자의 경우 봉양과 추모가 효의 덕목이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성인 여자 보다 높았다. 세대별 효 의식과 부모 부양의식을 비교한 최정혜(1999)의 연구 결과에서도 효 의식과 부모부양의식은 노년, 청년, 청년층 등 모든 세대에서 중요한 가치규범으로 나타나, 현대사회 속의 가족윤리로서 여전히 그 가치를 지속시키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효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세대별 연령, 성별, 학력, 종교, 가족형태, 출생순위 등으로 나타났다.

## 2) 친척유대

지리적으로 이동이 많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친척 관계를 통한 세대간 유대특성과 관련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대간 유대관계에 대해서 Bengtson(1979)등은 상호왕래나 방문 등 접촉활동과 상호간의 도움과 같이 외형적으로 드러난 활동들을 회합적(association)유대로, 세대간 정서적 측면을 다룬 애정적(affect)차원의 유대로, 그리고 신념이나 가치, 의견 등에서 유사성이나 동의의 정도를 가치관 일치의 합의적(consensus)유대관계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였다. Bengtson의 초기연구에서 이와 같이 세대간 관계에 있어 유용한 개념으로 가족유대감(family solidarity)을 정의한 후 Robert (1991)와 함께 응집력의 개념을 사회 심리적 입장에서 연구의 진전을 보이고 있다. 즉 세대간 유대(solidarity)의 본질적 구성요소로서 회합적(association), 애정적(affectual), 기능적(functional), 규범적(normative), 구조적(structural)유대로 분류하여 논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능적 유대관계란 재정적, 신체적 자원의 도움정도나 상호교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수행 정도는 규범적 유대로 정의하고 있다. 가족원 수, 가족유형 그리고 지리적 근접성 등은 구조적 유대로 특징지음으로써 초기 연구의 발전적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 부모, 자녀간 규범적 유대(normative solidarity)는 애정적(affectual),

회합적(association) 유대에 중요한 요인으로 즉 부모와 자녀 모두 규범적 상호작용 수준이 높을수록 애정적 수준도 높아 정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애정적 유대관계가 높을수록 회합적 유대도 높아 이들간에 상호관련성을 설명해 주고 있다.

Bengtson의 연구를 기초로 Atkinson(1986)등이 제안한 가족유대감에 대한 측정도구 중 회합적 유대관계는 상호방문이나 가족이 함께 활동하거나 주말에 교회 혹은 쇼핑가는 일 등이 포함되고,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얼마나 친밀감을 느끼는지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애정적 유대감을 측정하였다.

T.M. Cooney & P. Uhlenberg(1992)는 20-64세 성인을 대상으로 같이 살지는 않지만 그들의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 부모로부터 받는 지원에 대해 연구한 결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부모의 지원은 감소한다. 즉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이나 충고는 각 연령범주마다 3-5%씩 떨어지고 있었다. 또한 부모로부터의 서비스 자원은 40-50대에 대부분 감소하고 있다.

성인자녀와 부모, 형제와의 유대관계에 집중되어 있는 외국의 연구와 달리 대부분 국내연구는 시가(媿家)와 친가(親家)등 양가와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이동원(1984)의 연구에서는 양가와 의 관계망 범위, 만나는 횟수, 도움의 종류(물질적, 일손도움, 집안일 상담, 개인문제 상담 등), 그 관계가 공식적인가 정서적인가, 양가 방문시 부부동반 여부 등을 지표로 조사하고 있다. 그의 연구에서 일반적인 친척관계를 보면 친척범위가 부모, 형제 및 그 가족들로 제한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들과의 관계는 경제적 도움을 비롯하여 일손의 도움 및 개인적인 문제 등을 함께 의논한다.

한편 한국 도시사회에서 친족관계가 어떤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주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남제(1988)의 연구 결과 도시 친족간에는 80%이상이 가까운 친척과 전화를 통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명절과 제사때는 외조부모보다 조부모와의 접촉빈도가 높고, 명절, 제사, 생일 때 또한 부계 친척과의 접촉이 보다 빈번하게 나타났다. 서울시 핵가족 주부가 맺고 있는 시

가 및 친가와와의 관계를 회합적(會合的), 기능적(機能的), 정의적(情意的) 유대로 분류한 김경원, 옥선화(1989)에 의하면 회합적, 정의적 유대는 양가 모두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으나 기능적 유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다. 전체적으로 볼 때 주부는 시가와와는 의례적(儀禮的) 활동과 제공적(提供的) 관계를 갖는 경향이 있으며 친가와와는 비공식적 활동과 수혜적(受惠的) 관계 그리고 정의적(情意的) 유대는 맺는 경향이 있다. 또한 도시 주민의 친족관계(정진현, 1993)에서는 '의례적 행위'가 '사교행위'나 '가사협조행위' 보다, 그리고 친족의식에서는 '의무감'이 '유대의식'이나 '협조의식'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아직까지 조상과 웃어른을 숭배하고 고유한 명절을 의미 있게 여기는 전통적인 사상이 뿌리깊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제사와 명절 등이 우리의 친족관계와 친족의식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주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저소득층 부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전미경, 1992)에서도 일치되고 있어 도시 저소득 부인의 친족관계는 양가 모두 의례적 관계에 집중되어 있다.

최재석(1994)은 한국에 있어서의 친척관계를 사교관계, 가사협조관계, 공동사업, 의례적 관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이중 의례적 관계란 친척간 길흉사나 제사 참석 여부, 혹은 물질적 도움정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사교관계는 친척간 특별히 일이 없어서 서로 방문하거나 함께 놀러가거나 장보러가는지의 여부를 질문한 것으로 이는 각각의 내용들을 하나의 통합적 관계로 보지 않고 개별적이고 독립된 개념으로 연구한 것이다. 친척관계에 있어 전반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주부를 중심으로 한 시가와와의 관계는 길흉사나 제사 참석 등 의례적 활동이 활발하고, 혈연집단으로서 친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친척관계에 있어 실제 관계를 맺고 있는 친척의 범위가 부모, 형제 및 그 가족들로 친척관계 보다는 부부관계를 보다 더 중시하는 태도로 상호접촉 범위는 근친과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

한편 최근 친족관계 등 일차적 관계와 사회단체나 조직에의 참여를 중심으로 동료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관계망에 관한 연구(강성희, 1996; 이기숙·김현지, 2002)에서 일손의 기능과 물질적 기능은 친정(처가)로부터 제공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남성의 경우 친가와와는 정서적, 일손적, 물질적, 친교적 기능 모든 영역에서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사회에서 남성의 친족관계는 부계친 성격이 강하다고 밝힌바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내용 및 조사도구

본 연구는 효의 근본을 밝히고 이를 현대사회 재조명하기 위하여 조선조 규범서인 『내훈(內訓)』, 『동몽선습(童蒙先習)』, 『격몽요결(擊蒙要訣)』, 『계녀서(戒女書)』에서 효에 관한 내용을 발췌하여 이를 토대로 설문 구성하였다. 『내훈』(1475년)은 소혜 왕후가 아낙네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가르치기 위해 저술한 것으로 효친장(孝親章)과 돈목장(敦睦章)에서 효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박세무(朴世茂)의 『동몽선습』(1541)은 어린이들을 위한 인간의 요훈과 중국 및 한국의 역사를 다룬 저서로 부자유친(父子有親)과 장유유서(長幼有序), 총론(總論)에서 효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격몽요결』(1577)은 율곡 이이의 저서로 입지장(立志章), 사친장(事親章), 상제장(喪祭章), 제례장(祭禮章), 거가장(居家章)에서 효의 내용을 발췌한다. 『계녀서』는 우암 송시열(1607-1689)이 그의 출가하는 만딸에게 내린 지침서로 부모가 딸의 행복한 혼인생활을 바라는 뜻에서 지은 것이다. 효의 내용으로 부모 섬기는 도리, 시부모 섬기는 도리, 제사 받드는 도리, 병환모시는 도리 등이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효 규범이란 규범서(조선조 15C-17C에 출간된 내훈, 사소절, 격몽요결, 계녀서 등)에 제시되어 있는 효의 관념적, 실천적 내용을 모두 포함한다. 효의 내용은 크게 부모생시(生時)의 효 규범 15문항(존친의 효 5항목, 불욕의 효 5항목, 능양의 효 5항목)과 사후의 효 규범 15문항(상사의 효 7항목, 제사시 효 8항목)으로 구

분되며, 관련항목을 문헌에서 발췌하여 설문 구성하였다. 친척유대는 선행연구(김경원·옥선화, 1989; 정진현, 1993; 최재석, 1994)를 토대로 사교적유대(5문항), 가사협조유대(5문항), 의례적유대(5문항), 정서적유대(5문항) 등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교적 유대에는 친척간 왕래와 전화연락, 여행이나 쇼핑을 함께 하기 등이 포함된다. 가사 협조적 유대에는 경제적 원조, 병간호, 대소사 집안 일의 도움이 그 내용에 포함된다. 그리고 의례적 유대는 명절, 상·제례, 생신, 혼인시 왕래를 말하고, 정서적 유대는 친척간 배려와 이해, 존중감, 친밀함의 정도 등 정서적 측면이 포함되고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신뢰도 측정결과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제례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신뢰도 계수는 0.6이상으로 나타나, 문항간의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제례는 상례와 함께 사후의 효 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중요한 척도이므로 신뢰도는 낮으나 연구에 포함하였다.

## 2.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설문 구성된 자료를 토대로 도시 기혼 남녀의 효 규범의식의 차이를 분석하고 유형별 친척유대 관계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친척유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혼인 남성은 친가와

처가의 가족, 여성은 시가와 친정의 가족들로 양가 친척 모두 포함(친척의 범위는 부모형렬, 형제형렬과 그 자녀들인 근친으로 제한)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먼저 설문지 50부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는 2003년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서울시와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2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기혼 남녀로 총 6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부실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566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자료분석을 위한 SAS Program으로 각 영역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효 의식과 친척유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N	%
연 령	20-30대	211	37.3
	40-50대	249	44.0
	60-70대	106	18.8
성 별	남	211	37.3
	여	347	61.3
종 교	기 독 교	118	20.8
	친 주 교	84	14.8
	불 교	161	28.4
	무 교	192	33.9
	기타종교	6	1.1
출생순위	장남·장녀	206	36.4
	차남·차녀	309	54.6
	외 동	40	7.1
교육수준	무 학	28	4.9
	초등학교졸	56	9.9
	중 졸	93	16.4
	고 졸	186	32.9
	대학 재학중	25	4.4
대학원졸 이상	대 졸	150	26.5
	대학원졸 이상	23	4.1
	합 계	566	100
가족형태	부부가족	131	23.1
	핵 가족	358	63.3
	확대가족	75	13.3
합 계		566	100

\*결측치 제외

<표 1> 척도의 하위영역별 신뢰도

변 인		문 항 수	Cronbach's $\alpha$
생시의 효	존 친	5	0.8338
	불·육	5	0.7677
	봉 양	5	0.8224
사후의 효	전 제	15	0.8942
	상 례	8	0.8178
	제 례	7	0.4633
친척유대	전 제	15	0.7877
	사 교 적	5	0.8912
	가 사 협조적	5	0.8778
	의 례 적	5	0.8994
	정 서 적	5	0.8869
전 제	20	0.9496	



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one-way ANOVA를 실시하였고, 이들간 관계는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또한 효의식과 친척유대에 영향력있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 1. 효 규범의식과 친척유대관계의 전반적 경향

현대인의 효규범 의식과 친척유대의 수준을 살펴본 결과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효규범 의식은 평균 3.78로 중위점을 상회하고 있었다. 하위 영역중 생시의 효 의식이 평균 4.00으로 사후의 효 의식(평균 3.55)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생시의 효에서는 부모를 존경하며 뜻을 받드는 존친의 효(평균 4.14)의식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봉양의 효로 나타났다. 자신의 언행을 바르게 하여 부모를 욕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함을 경계한 불욕의 효(평균 3.77)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후의 효에서는 상례(평균 3.66)가 제례(평균 3.4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편 친척유대관계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이 3.39로 현대인의 친척유대 관계는 중위점을

상회하고 있으나 효 규범의식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친척유대 관계 중 경조사 의례시 참석과 왕래를 일컫는 의례적 유대가 평균 3.73으로 가장 높아, 도시 주부들의 친족관계를 조사한 바 있는 전미경(1992), 정진현(1993)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여 주고 있다. 그 다음으로 정서적 유대, 가사 협조적 유대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척간의 전화, 방문, 여행이나 쇼핑 등의 사교적 유대는 평균 2.97로 보통이하의 수준이었다.

#####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효 규범 의식과 친척유대관계

효 규범의 내용 중 사회인구학적 변인별 효 규범 의식에 대한 조사 결과 <표 4>와 같다.

하위영역 중 생시의 효는 전체적으로 연령, 성별, 교육수준, 가족형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60-70대의 노인층(M=4.27)의 효규범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나, 세대별 효의식을 조사한 최정혜(1999)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생시의 효 규범과 관련된 변인별로 보았을 때, 연령이 높을수록 효 규범의식이 높았고, 성별에서는 남성의 효 의식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부모를 존경하고 그 뜻을 따르는 존친의 효 의식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남성이 더 우세하였다.

교육수준별 효규범의식은 무학인 경우 가장 높았는데, 중졸이하이거나 대졸 이상인 집단의 효의식이 오히려 높게 나타나 집단간 양극화 현상을 볼 수 있다. 가족형태별로는 전체적으로 확대가족의 생시의 효 규범 의식이 가장 높았고 핵가족 형태에서의 효 규범 의식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하위 영역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한편, 효 규범 의식 중 사후의 효 의식은 전체적으로 연령, 성별, 종교, 교육수준, 가족형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청·장년층 보다 노년층의 사후의 효 규범 의식이 더 높았고, 성별에서는 남자들의 효 의식이 높아 생시의 효와 그 결과가 일치하고 있다. 종교는 생시의 효에

<표 3> 효 규범의식과 친척유대 수준

변 인		M(SD)
생시의 효	존 친	4.14(0.51)
	불 욕	3.77(0.59)
	봉 양	4.09(0.47)
소 계		4.00(0.44)
사후의 효	상 례	3.66(0.63)
	제 례	3.43(0.46)
	소 계	3.55(0.48)
전 체		3.78(0.41)
친척유대	사 교 적	2.97(0.75)
	가 사 협 조 적	3.38(0.76)
	의 례 적	3.73(0.76)
	정 서 적	3.45(0.73)
전 체		3.39(0.62)

〈표 4〉 사회인구학적 변인별 효 규범 의식

구 분		생시의 효								사후의 효					
		존 친		불 욕		봉 양		전 체		상 레		제 레		전 체	
		M	D	M	D	M	D	M	D	M	D	M	D	M	D
연령	20-30대	4.05	B	3.62	C	3.99	B	3.89	B	3.55	B	3.33	B	3.44	B
	40-50대	4.11	B	3.76	B	4.07	B	3.98	B	3.59	B	3.42	B	3.51	B
	60-70대	4.40	A	4.09	A	4.32	A	4.27	A	4.06	A	3.67	A	3.86	A
	F	18.24***		24.14***		17.12***		28.43***		26.89***		19.18***		30.06***	
성별	남	4.25		3.80		4.13		4.07		3.77		3.47		3.62	
	여	4.08		3.74		4.06		3.96		3.60		3.42		3.51	
	t값	3.85***		1.21		1.74		2.62**		2.99**		1.26		2.72**	
종교	기 독 교	4.14		3.76		4.09		3.99		3.57		3.23	C	3.40	B
	천 주 교	4.09		3.76		4.01		3.95		3.55		3.31	ABC	3.43	B
	불 교	4.18		3.82		4.13		4.05		3.73		3.55	A	3.64	A
	무 교	4.15		3.74		4.09		4.00		3.72		3.52	AB	3.61	A
	기타종교	3.76		3.43		3.86		3.68		3.45		3.27	BC	3.36	B
F	1.23		0.97		1.15		1.43		2.27		11.59***		6.29***		
교육 수준	무 학	4.51	A	4.10	A	4.35	A	4.35	A	4.20	A	3.80	A	4.00	A
	초 등 졸	4.22	B	3.96	AB	4.20	ABC	4.13	B	3.79	B	3.64	A	3.72	B
	중 졸	4.11	B	3.87	ABC	4.03	CD	4.00	BC	3.62	B	3.43	B	3.52	BC
	고 졸	4.13	B	3.67	C	4.01	CD	3.93	BC	3.61	B	3.41	B	3.51	C
	대학재학	4.07	B	3.64	C	3.96	D	3.91	C	3.70	B	3.23	B	3.47	C
	대 졸	4.12	B	3.74	BC	4.13	BCD	4.00	BC	3.62	B	3.38	B	3.50	C
	대학원이상	4.12	B	3.63	C	4.28	AB	4.02	BC	3.60	B	3.32	B	3.46	C
	F	2.86**		4.30***		4.21***		4.61***		4.23***		6.46***		6.15***	
가족 형태	부부가족	4.14	B	3.75	B	4.09	B	3.99	B	3.62	B	3.45	B	3.53	B
	핵 가족	4.10	B	3.74	B	4.05	B	3.96	B	3.62	B	3.39	B	3.51	B
	확대가족	4.35	A	3.95	A	4.28	A	4.19	A	3.93	A	3.65	A	3.79	A
	F	7.11***		4.15*		7.39***		8.33***		7.64***		9.62***		10.69***	

\*P<.05 \*\*P<.01 \*\*\*P<.001

서와는 달리 사후의 효 규범 의식에서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본 조사 결과 불교, 무교 집단의 사후의 효 의식이 높았는데, 이는 상·제례 시 자손의 도리를 강조한 조상숭배의 사상적 배경은 일부 종교집단의 부정적 견해를 반영하였으리라 여겨진다.

한편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무학)에서의 사후의 효 규범 의식은 높아 생시의 효 의식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가족형태에서는 확대 가족인 경우 사후의 효 의식이 높게 나타나 생시의 효 의식과 일치된 결과를 볼 수 있다.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친척 유대 관계를 살

펴 본 결과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친척유대 관계는 전체적으로 연령, 성별, 종교, 출생순위, 가족형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노년층(60-70대)의 친척유대 관계가 가장 높았다. 그리고 청년층(20-30대)보다 중년층(40-50대)에서의 친척유대가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결혼기간이 10-20여년이 되는 이 시기는 중고교 자녀들의 학업이 가정내 주 관심사로 입시 스트레스와 친척간 왕래단절, 경제적문제등이 따를 수 있으며, 또한 중년기에 이른 형제·친척들은 내재된 갈등의 노출이 가능한 시기이므로 친척간 결속력은 약화되어질수 있다고 여겨진다.

<표 5> 사회인구학적 변인별 친척유대관계

구 분		사 교 적		가사협조적		의 레 적		정 서 적		전 체	
		M	D	M	D	M	D	M	D	M	D
연령	20-30대	2.95	B	3.38	B	3.74	AB	3.33	B	3.62	B
	40-50대	2.89	B	3.30	B	3.65	B	3.43	B	3.32	B
	60-70대	3.19	A	3.56	A	3.90	A	3.76	A	3.71	A
	F	6.0**		4.45*		3.99*		12.82***		8.92***	
성별	남	3.07		3.49		3.83		3.57		3.49	
	여	2.92		3.32		3.69		3.39		3.34	
	t값	2.19*		2.45*		2.19*		2.88**		2.77**	
종교	기 독 교	2.92		3.30	A	3.67	A	3.39	A	3.37	A
	천 주 교	2.94		3.24	A	3.58	A	3.37	A	3.29	A
	불 교	3.08		3.48	A	3.88	A	3.53	A	3.49	A
	무 교	2.94		3.42	A	3.74	A	3.48	A	3.39	A
	기 타	2.36		2.53	B	2.96	B	2.36	B	2.55	B
	F	2.01		3.71**		4.12**		4.43**		4.42**	
출생 순위	장남·장녀	3.07		3.45		3.88	A	3.53		3.51	A
	차남·차녀	2.89		3.33		3.66	AB	3.40		3.31	B
	외 동	2.92		3.35		3.52	B	3.46		3.33	B
	F	3.55		1.78		6.81**		1.93		5.84**	
교육 수준	무 학	3.08		3.69		4.03		3.86		3.65	
	초등학교졸	2.99		3.35		3.86		3.55		3.48	
	중 졸	3.10		3.31		3.64		3.40		3.35	
	고 졸	2.90		3.38		3.70		3.46		3.36	
	대학재학	3.11		3.44		3.81		3.48		3.46	
	대 졸	2.95		3.38		3.74		3.39		3.40	
	대학원이상	2.74		3.31		3.73		3.38		3.29	
F비	1.28		0.95		1.31		1.94		1.30		
가족 형태	부부가족	3.00	B	3.34	B	3.68	B	3.35	B	3.40	B
	핵 가족	2.90	B	3.34	B	3.69	B	3.43	B	3.33	B
	확대가족	3.24	A	3.64	A	4.02	A	3.76	A	3.67	A
	F	6.31**		4.85**		6.13**		8.26***		9.04***	

\*P<.05 \*\*P<.01 \*\*\*P<.001

성별에서는 남자들의 친척 유대가 여자들과 비교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특히 의례적(M=3.83)관계가 우세하였다. 이는 집안 경조사에 남성들의 참여율이 여성들 보다 높음을 알 수 있는 결과로, 남성들의 활발한 친족 관계망을 보고한 바 있는 강성희(1996), 이기숙·김현지(2002)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변인별 친척유대관계를 전체적으로 볼 때, 종교는 기타 종교를 제외한 종교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었으나, 출생순위에 있어서는 장남(녀)의 친척유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가족 형태별로는 확대가족의 친척유대가 타집단과 비교하여 가장 높았다. 확대가족의 친척유대는 하위영역 중 특히 의례적 관계가 가장 높았고(M=4.02), 사교적 관계(M=3.24)가 가장 낮았다. 3세대 확대 가족은 공적관계인 의례적 활동에 친척성원간 지지도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반면, 사적 관계인 사교적 활동은 약화된 것을 볼 수 있다.

3. 효 규범 의식과 친척유대간의 상관관계 분석

효 규범 의식에 따른 친척유대와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6>과 같다.

전체적으로 생시의 효의식(.44) 보다 사후의 효의식이 친척유대와 상관(.47)관계가 다소 높았다. 생시의 효 중 존친(.40)이 친척유대와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고, 사후의 효 의식은 상례(.51)와 관련성이 가장 높았다. 존친은 웃어른에 대한 존경이 밀바탕 되어 나타나는 효의 개념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존친이 가족간 유대를 공고히 해주는 가도(家道)가 됨을 볼 수 있다. 또한 3년이라는 상기(喪期)를 가지며, 과거 모든 의례중 가장 그 절차가 복잡하고 엄숙하게 진행되었던 상례를 통해 한 뿌리에서 나온 자손들은 부모의 상을 슬퍼하며 일체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친척유대의 하위 영역 중 생시의 효의식은 정서적 유대와 상관(.44)관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의례적 유대(.38), 가사 협조적 유대(.31), 사교적 유대(.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후의 효 의식에서는 친척유대 중 의례적 유대(.52)와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정서적 유대(.46), 가사 협조적 유대(.41)의 순 이었다. 부모님 살아 생전의 효도는 정서적 긴밀감과 애정이 가족간 결속력을 공고히 해 주는 주 요인이 되고 있으나, 상례와 제례를 중심으로 한 돌아가신 후의 효도에 대한 관념은 의례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후의 효 의식과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사교적 유대(.24)로 나타났다. 또한 효 규범 의식은 친척유대의 전체 하위 영역 중 사교적 유대와 낮은 상관관계(.30)를 나타내고 있어, 한국사회 효의식이 아직도 친척 및 가족간 사적 관계를 제재하는 규범화된 윤리의식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효 규범의식과 친척유대에 대한 제 변인의 영향력

효 규범의식과 친척유대에 대한 제 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효 규범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전체적으로 연령, 종교, 가족형태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은 60-70대의 노년층이며( $\beta=.33$ ), 종교는 무교( $\beta=.14$ ), 불교( $\beta=.12$ )이고 확대가족( $\beta=.12$ )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들의 설명력은 14%이다. 따라서 효의식은 노년층이면서 종교가 무교, 불교이고 확대가족형태인 경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위 영역별로는 생시의 효 규범의 경우 60-70대 노년층( $\beta=.36$ ), 40-50대의 중년층( $\beta=.13$ ), 확대가족( $\beta=.12$ )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존친과 불육, 영양등 중·노년층의 생시의 효 규범 의식이 높았다. 사후의 효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표 6> 효 규범의식과 친척유대와의 상관관계

변 인			친척유대 관계				
			사 교 적	가사협조적	의 려 적	정 서 적	전 체
효 규범 의식	생시의 효	존 친	.2444***	.2914***	.3802***	.3802***	.4034***
		불 육	.2654***	.2180***	.2443***	.3696***	.3419***
		봉 양	.1795***	.2875***	.3517***	.3462***	.3749***
	사후의 효	전 체	.2782***	.3100***	.3770***	.4380***	.4397***
		상 례	.3081***	.4137***	.5133***	.4853***	.5116***
		제 례	.0782	.2750***	.3700***	.2973***	.2708***
전 체		.2392***	.4065***	.5167***	.4635***	.4654***	
전 체		.2954***	.4050***	.5066***	.5098***	.5094***	

\*P<.05 \*\*P<.01 \*\*\*P<.001

<표 7> 효 규범의식과 친척유대에 대한 회귀분석

변인	효 규범의식			친척유대 관계				
	생시의 효	사후의 효	전체	사교적	가사협조적	의례적	정서적	전체
	B(β)	B(β)	B(β)	B(β)	B(β)	B(β)	B(β)	B(β)
40-50대	.1202** (.1341)					-1814* (-1173)		-1408* (-1112)
60-70대	.4047*** (.3562)	.3860*** (.3108)	.3951*** (.3253)	-.1627* (-.1062)		-.2960** (-.1504)		
불교		.1836** (.1716)	.1234*** (.1245)					
무교	.1987*** (.1941)	.1543*** (.1432)						
기타			-.6203* (-.0857)	-.8665** (-.1253)	-.6044** (-.1048)			
차남·차녀				-.1654* (-.1080)		-.1364* (-.0885)		-.1347* (-.1065)
의동				-.3099** (-.1052)				
중졸				.3601* (.1737)				
확대가족	.1525* (.1167)	.1656* (.1164)	.1567* (.1165)					
생시의 효				.3652*** (.2138)	.2063* (.1184)	.2341** (.1357)	.4045*** (.2410)	.3683*** (.2611)
사후의 효					.5138*** (.3244)	.6980*** (.4444)	.4406*** (.2879)	.3765*** (.2916)
R <sup>2</sup>	.1287	.1600	.1430	.1444	.2015	.3153	.2922	.3030
상수	3.9056***	3.4454***	3.6454***	1.1219***	.8143*	.5502	.1715	0.7303**
F비	4.59***	5.88***	5.10***	4.42***	6.63***	12.09***	10.73***	10.93***

\*P<.05 \*\*P<.01 \*\*\*P<.001

\* 기준변인- 연령: 20-30대, 종교: 기독교, 출생순위: 장남·장녀, 교육수준: 무학, 가족형태: 부부가족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연령(60-70대), 종교(무교와 불교), 가족 형태(확대가족)등이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16%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상·제례를 중심으로 한 사후의 효 의식은 연령이 높고, 종교는 무교이거나 불교일 때 그리고 확대가족인 경우 높았다.

한편 친척유대 관계에 대한 제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사후의 효(β=.29), 생시의 효(β=.26), 연령은 40-50대(β=-.11), 차남·차녀(β=-.11), 기타종교(β=-.10)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30%의 설명력을 나타낸다. 즉 생시·

사후의 효의식과 친척유대는 정적관계를 가지며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었고, 연령에 있어서는 중년층이 아닌 청년층이나 노년층일 때 친척유대는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출생순위는 차남(녀)이 아니며, 종교에서는 기타종교가 아닐때 친척유대는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위영역 중 사교적 유대는 생시의 효(β=.21), 중졸(β=.17), 차남·차녀(β=-.11)와 60-70대 노년층(β=-.11)이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14%의 설명력을 가진다. 즉 생시의 효 의식은 친척간 사교적 유대관계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존친, 봉

양, 불육등의 생시의 효 의식이 높을수록 사교적 유대는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출생순위가 차남(녀)이 아닌 경우 즉, 장남·장녀 혹은 외동이 등 집안 내 보다 많은 책임과 의무감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 친척간 사소한 왕래와 연락을 주고받는 사교적 유대관계가 강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연령에서는 노년층보다 청장년층에게서 친척간 사교적 유대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척간 신체적, 물질적 원조를 포함하는 가사 협조적 관계에 대한 영향력은 전반적으로 20%의 설명력을 보이며, 효규범 의식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제례 의식을 수행하는 사후의 효( $\beta=0.32$ )가 생시의 효( $\beta=0.12$ )보다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그 밖에 기타 종교( $\beta=-0.09$ )가 영향력 있는 변인은 나타났다.

하위영역 중 의례적 유대에 대해서는 사후의 효 의식( $\beta=0.44$ )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이며, 생시의 효 의식( $\beta=0.14$ )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들의 설명력은 32%이다. 이는 효 규범 의식이 높을수록 의례적 유대관계는 높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상·제례의식을 다룬 사후의 효 규범의식은 의례적 유대관계와 높은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밖에 의례적 유대의 연령에서는 40-50대( $\beta=-0.12$ ) 60-70대( $\beta=-0.15$ ), 출생순위에서는 차남·차녀( $\beta=-0.09$ ), 외동( $\beta=-0.11$ ) 등이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32%의 설명력을 가진다. 즉 20-30대 청년층이며 장남이나 장녀일 때 친척간 의례적 유대 관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친척간의 정서적 유대 관계에 대한 영향력은 사후의 효( $\beta=0.29$ ), 생시의 효( $\beta=0.24$ ), 기타종교( $\beta=-0.13$ ) 순으로 29%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효 규범의식이 높을수록 정서적 유대관계는 강조되고 있었고, 종교가 기타종교가 아닌 경우 때 정서적 유대 관계가 높았다.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전통적인 효 규범의식과 현대인의 친척유대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된 것으

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을 수 있다.

첫째, 현대인의 효 규범의식의 수준을 살펴본 바, 전체적으로 효 의식은 보통 이상으로 효의 윤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상·제례등의 사후의 효 의식 보다 살아 계실 때의 존친, 불육, 봉양을 중심으로 한 생시의 효 의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현대인들의 현세주의적 효의 관념을 엿볼 수 있는 결과이다.

친척 유대 수준은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 중 의례적 유대관계는 강화되어 있는 반면 사교적 유대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즉 오늘날 친척유대는 의례적 활동을 중심으로 한 공적관계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현대인의 효 규범 의식은 연령이 높은 노년층의 남성이 보다 높게 나타났고, 종교는 불교나 무교일 때 높았다. 대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을 때(무교) 그리고 확대가족 형태일 때 효 규범의식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현대 한국인의 효 규범은 3세대 확대가족으로 교육수준이 대체로 낮은 60-70대 노년층의 남성에게서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사회인구학적 변인별 친척유대관계는 연령에 있어 60-70대의 노년층이 가장 높았고, 청년층(20-30대)보다 중년층(40-50대)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특히 의례적관계에서 타집단 보다 낮았다. 이와 관련하여 중년기 기혼여성들의 사회적 지원망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임효영·김경신, 2001)에서 중년기 기혼여성들은 친척친족과 친구에게서 정서적 지원을 가장 많이 받고 있었으며, 시가 친족과 이웃, 사회단체와는 친밀감과 접촉빈도가 높은 집단이 생활만족도가 높으므로 중년기 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시가친척을 공식적, 의례적 관계로 생각하기 보다는 서로간의 정보를 주고 받으며 자주 만나 사교적 활동을 나눔으로써 보다 긍정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이는 중년기에 의례적 활동의 강요는 친척유대관계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성별 친척유대관계는 여성보다 남성이 높게 나타났고, 출생순위에 있어 장남이나 장녀일 때, 가족형태는 확대가족일 때 높았다.

셋째, 효 규범의식과 친척 유대와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특히 사후의 효가 상관관계가 다소 높은 경향이었다. 생시의 효 중 친척유대와 상관관계가 높은 효 의식은 존친이고, 사후의 효 의식은 상례로 나타났다. 또한 생시의 효 의식은 정서적 유대와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고, 사후의 효 의식은 의례적 유대와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생전에 부모님을 존경하고 받드는 효 의식이야말로 친척간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친밀한 관계를 지속시켜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돌아가신 조상과 부모의 상·제례 의식을 극진히 해야 하는 사후 효 의식에 대한 긍정적 사고는 친척간 의례적 유대로서 공적관계를 강화시켜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효 규범의식과 친척유대의 제 변인에 대한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 효 규범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 종교, 가족형태이다. 특히 노년층은 효 규범의식에 매우 영향력 있는 변수로 60-70대의 효 규범 의식이 가장 높았고, 종교는 무교나 불교일때 그리고 확대가족형태 일때 효의식은 높게 나타났다. 효 의식 중 생시의 효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 가족형태이고, 사후의 효 의식은 연령, 종교, 가족형태로 나타났다.

한편, 친척유대 관계는 연령, 종교, 출생순위, 생시의 효와 사후의 효가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친척유대의 하위영역 중 가사협조적 유대, 의례적유대, 정서적 유대는 공통적으로 생시·사후의 효가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척간 사교적유대는 생시의 효가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사후의 효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적 활동을 중심으로 한 친척간 사적 관계가 부모님 살아 생전에 잦은 왕래와 접촉을 통해 원활하게 유지 될 수 있었으며 부모님 사후의 친척관계는 의례적 관계로 전이되는 경향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맺을 수 있다.

첫째, 현대인들은 선조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보다 살아 생전에 공경하고 뜻을 따르며 봉양하는 생시의 효를 더 중요시하고 있음을 볼 때, 보이지

않는 조상에 대한 관념적 조상숭배의식은 비교적 약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통적으로 상·제례의식은 그 어떤 의례보다도 절차와 행례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많은 제약조건이 따른다. 최근 모든 상례의식은 장례 전문예약기관이나 병원장례식장으로부터 일체 절차상의 필요한 시설과 진행을 맡기는 추세로 사후의 효 의식은 앞으로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전통적인 효 규범 의식은 60-70대의 노년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연령층이 낮을수록 효의식도 낮게 나타났다. 세대간 효 규범 의식이 차이나는 이유 중 하나로 전통적인 효 규범에 대한 시각의 차가 클 수 있다. 이는 효에 대한 해석도 현대사회에 적합하게 재정리해야 함을 의미한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다. 노인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스스로 효의 현대적 의미를 재정립해야 할 뿐 아니라, 노인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노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책임감등 효의 현대적 가치와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사회적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현대인들의 친척유대관계는 사교적 유대보다 의례적 유대 관계가 강조되고 있었다. 주거지의 잦은 이동과 변화로 친척간 원거리에서 살아야 하는 현대 산업사회의 가족문화를 보면 가족간 빈번한 왕래와 방문에 어려움이 따르고, 때때로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에서 자녀들을 친척들로부터 고립시키는 경우를 보게된다. 그러나 어른 생신이나 혼·상·제례 등 의례적 활동에서의 의무적 관계는 친척 관계를 약화시키지는 않지만, 친척간 결속력 강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오히려 잦은 왕래와 빈번한 접촉 등 애정을 통한 사교적 관계가 오늘날 친척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넷째, 현대인들의 전통적 효 규범 의식과 친척유대 관계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생시의 효 중 부모님을 존경하는 존친(尊親)이 친척유대와 관련성이 높았다. 그리고 생시의 효의식은 친척간의 정서적 유대와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다. 부모님 살

아생전에 어른을 존경하며 받드는 존친은 어른 공경의 가도(家道)가 존재하는 가정에서 친척유대 형성에 기여하며, 이들은 정서적 안정과 애정을 기반으로 하여 친척간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사후의 효의식은 친척유대 관계 중 의례적 유대와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는데, 상례를 통한 유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부모님을 여윈 슬픔으로 자손들이 일체감을 형성하며 예를 행하는 상례는 비록 한시적이지만 친척 유대관계를 공고히 해 주는 매개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오늘날 사후의 효인상·제례등의 의례적 활동은 현대사회에서 친척간 유대관계 형성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성희(1996). 도시 기혼 남녀의 사회적 관계망.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고경미(1987). 대학생의 효행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원, 옥선화(1989). 친족관계망 유대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 14, 6-11.
- 김명자, 안선영(1996). 신세대 부부와 중년기 부부의 효도관 비교분석. 대안가정학회지, 34(6), 113-125.
- 박세무, 이석호 역(1986). 동몽선습. 을유문화사.
- 성규탁(1989). 한국인의 효행에 관한 연구. 전통윤리의 현대적 조명.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연구논총 89-7.
- 소혜왕후. 내훈.
- 송시열. 계녀서.
- 안혜숙(1999). 한민족의 전통적 가족윤리의 원천 -효를 중심으로-. 한국전통생활문화학회지, 2(1).
- 예기, 이민수 역(1979). 四書五經 8, 9. 성균서관.
- 오선균(1981). 효 윤리의 현대적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가호(1984). 도시중류 가족의 친족관계에 관한 일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
- 이광자(1989). 우리나라 친족관계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기숙, 김현지(2002). 중년기 남성의 사회관계망과 심리적 복지감. 대안가정학회지, 40(6), 133-144.
- 이길표, 주영애(1996). 전통가정생활연구. 신광출판사.
- 이동원(1984). 도시주부의 관계망에 대한 조사. 이대 한국문화연구원논총, 44, 9-32.
- 이승원(1983). 효 윤리의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 이, 이민수 역(1989). 격몽요결. 을유문화사.
- 이효재(1990). 가족과 사회. 경문사.
- 임효영, 김경신(2001). 중년기 기혼여성의 사회적 지원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안가정학회지, 39(12), 189-203.
- 전미경(1992). 도시 저소득층 부인의 친족관계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의 7인(1996). 한국인의 효인식 및 실천 정도에 대한 연구. 대안가정학회지, 34(6), 387-403.
- 정진현(1993). 한국 도시 주민의 친족관계와 친족의식.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 최정혜(1999). 가족주의 가치관과 효 및 부모부양의식의 세대별 비교연구. 대안가정학회지, 37(9), 85-101.
- 최재석(1994). 현대가족연구. 일지사.
- 한남제(1988). 도시 주민의 친족관계. 한국사회학, 여름호, 41-57.
- M. R. Atkinson, V. R. Kivett, & R. T. Campbell (1986).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 Examination of a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Gerontology*, 3, 408-409.
- Teresa M. Cooney & Peter Uhlenberg (1992). Support from Parents over the life Course: The Adult Child's Perspective. *Social Forces*, 63-84.
- V. L. Bengtson & R. E. Roberts (1991).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in aging Families: An example of formal theory constru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ies*, 53(4), 856-858.

(2004년 8월 17일 접수, 2005년 3월 14일 채택)